

오피니언

월/요/광/장



박선정

연말이 되면 공연물이 넘친다. 지역의 공연 뿐만 아니라 유명 뮤지컬이나 콘서트도 전국투어공연으로 광주를 찾는다.

의 공연이나 지금의 공연이나 차별성이 없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감독과 예술혼이 실리지 않은 공연이거나 출연진들의 몸짓 하나, 눈빛 하나에서도 프로정신을 느끼기 어렵다.

예술가는 어떻게 단련되는가

사장이 이러한데도 유료관객을 확보한다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혹자는 시립예술단 공연에 문화회관 대극장의 텅빈 초대석을 예로 들면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책임론을 거론한다.

또는 객관적 비평문화가 사라지고 학연으로 얽힌 온정주의만 남은 우물안 개구리식 공연환경이 경쟁력을 실종시킨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무슨 이유를 불이더라도 공연의 책임은 제작스텝과 출연진에 있다. 요즘은 '극악계의 프리마돈나'라는 별칭으로 상종가를 올리고 있는 박애리의 경우를 보면 예술가는 어떻게 단련되는가를 엿볼 수 있다.

목포 출신 박애리는 국립창극단에서 안숙신 이후 30년만에 배출된 '여자 명창'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1999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할때만 해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루에 무려 100가지 이상의 지직사향 최소한 1만 시간동안 노력한다면 누구나 정상이 올 수 있다고 말한다. 1만 시간은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3시간씩 연습한다고 했을 때 10년을 투자해야 하는 긴 시간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우직하게 실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예술인이 매너리즘에 빠져 치열함을 상실할 때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기회가 왔다. 시립극단 재창단은 명성 높았던 광주연극의 자존심의 부활이자 빈약한 광주공연을 되살릴 무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늘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우직하게 실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예술인이 매너리즘에 빠져 치열함을 상실할 때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문제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 어렵게 살려낸 지역 현안예산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3년 연속 이어진 여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현안사업비가 최소 5000억 원 이상 증발했다는 광주주시와 전남도의 집계가 이를 반증해준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국회 파행 지역현안예산 매몰되선 안돼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현안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미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겼다. 게다가 정기국회 회기인 9일까지 합의처리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제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 어렵게 살려낸 지역 현안예산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3년 연속 이어진 여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현안사업비가 최소 5000억 원 이상 증발했다는 광주주시와 전남도의 집계가 이를 반증해준다.

더욱이 올해 광주시의 경우 국회 상임위를 통해 근래 최대액인 6211억 원(26건)이 신규로 반영되거나 증액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예산국회에 참여하지 않고 또다시 날치기를 당한다면 그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와 FTA 투쟁을 분리하는 게 옳다. 자칫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예산이 누락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

돈벌이 수단 변질된 어린이집 불법 거래

사회복지사업법상 매매가 금지된 법안 어린이집이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거래되고 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4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대표 A(60)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5명은 광산구와 북구의 어린이집 운영권을 각각 수억 원의 보증금과 수백만 원의 월 임대료 등을 받고 불법 거래하다 적발됐다

법안 어린이집은 토지와 건물이 국가 소유로서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국가가 인건비와 보육료의 30%~80%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어린이집 설립이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뀌면서 신규 설립이

어려워지자 인가증과 원생에 대해 값을 매겨 사고 파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당국에 적발한 건수는 찾지 못했다.

고액의 권리금을 내고 거래된 어린이집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갖가지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교육의 질이나 서비스 등도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불법이라는 것대에 안주할 게 아니라 어린이집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법조칼럼



최정희

피해자를 위한 변호

기 위한 법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범죄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고,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의 형사사법기관은 이를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는 예까지 못하였던 범죄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기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권이 모두 침해당하고 극도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 대인관계를 기피하거나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오히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1차 피해의 고통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아야 한다.

기고



손성운

클러스터, 중소기업 성장의 해법

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훗날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광주, 군산, 대불, 익산 등을 비롯한 호남 지역의 활동도 활발하다. 내년에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기지인 여수단지에도 확대될 계획이다.

회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사업이 시작된 5년 전에 비해 광기업체 수는 8배, 고용은 5배, 생산과 수출 규모도 10배 이상 성장했다.

기업이 중심이 된 6개 미니클러스터와 대학·전문가·지원기관이 모여 유기적인 네트워크 활동과 정보공유 등 창의적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기업으로서의 기술력을 갖추고 경쟁력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뿐더러 부족한 마케팅, 디자인, 판로개척 등에서도 진일보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정비업체 과잉수리, 운전자 보험료 인상 피해 이어져

얼마 전 출근 중에 뒤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내차 앞으로 끼어들다 뒷좌석부터 앞쪽까지 흡집을 냈다.

그런데 카센터에서 단순한 흡집만 생겼을 뿐인데 전체 도색을 권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흡집을 낸 차주가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이니 급한 자국민 판금 하지말고

그냥 통째로 전체도색을 하라는 것이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올해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이 50만원에서 200만 원까지 높아졌다.

고 전체 도색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나중에 그 상황이 닥쳤을 때는 똑같은 덩터기를 쓰는 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이런 횡포를 막으려면 우리 국민이 카센터에서 사전 견적서를 보험회사에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가 모두가 보험금은 주인 없는 돈이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과잉정비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들만 덩터기를 쓰는 것 아닌가.

▲이학섭·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無等鼓

춤추듯 흐느적거리는 부드러운 품새, 독특한 율동을 타며 손과 발을 순간적으로 우죽거리 생기는 탄력으로 상대를 제압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에 따르면 삼국시대와 그 이전에는 지배계급인 무사들의 필수 무예였으며, 고려때는 왕이 직접 경기에 참가할 만큼 궁중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널리 유행했다.

고구려 벽화 '무용 춤'에는 두 남자가 맞서서 견주기 동작을 하는 장면이 있다. '삼실총' 벽화에도 굴실 거리는 걸음걸이로 활개를 하는 동작이 선명하다.

경주 용강동에서 발굴된 통일신라시대 고분의 인물토요어나 금강역사상 등에서 택견 자세를 볼 수 있다.

'고려사'는 택견을 수박(手搏)이라 기록하고 있다. 무신정권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이의민은 수박을 잘해 별장(別將)으로 승진까지 했다.

조선시대에는 무과의 시재(試才)와 군사들의 훈련과목이 되기도 했으나 문종무비(文宗武庫) 사조가 폐배해지면서 양반계급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기층민중들에 의해 민속놀이로 전승됐다.

민중들의 역사와 민족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택견은 무예지만 결코 상대방을 해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기술을 쓴다. 배려의 정신이다.

덕분에 택견은 국내에서 무술로는 유일하게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1983년)됐다.

을 계승해 현대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역사가 정확히 정립되지 않아 의견이 분분하다.

Table with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formation,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